

✦ 우리들의 정성 【12월 12일(월) ~ 12월 18일(주일)】

대림 제4주일 주일헌금	3,890,200원		주일미사 참여자수	723명
교무금 4,590,000원	강경옥 안젤라	고만중 프란치스코	김동명 필립보	김민진 에디타
	김선철 고스마	김성태 아네스	김승태	김일수 베드로
	김정임 사비나	김진우 크리스토폴	김태환 마르코	문철환 하상바로
	박종성 미카엘	박종원 에드워드	서홍규 스테파노	송영자 가타리나
	신재철 베드로	오경아 카타리나	원주현 헬레나	유리숙 빅토리아
	이강훈 바울로	이명은 아가페	이미혜 루시아	이선희 글라라
	이영숙 루시아	이재영 데레사	이진규 마태오	이춘자 안젤라
	이학구 빈첸시오	이혜원 데레사	이호빈 야고보	임은영 세실리아
	임이섭 안드레아	임현교 그레고리오	장덕진 미카엘	정승은 베로니카
	조인구 베드로	조현숙 로사리아	차현근 프란치스코	최순종 가타리나
	최영희 카타리나	최영희 리디아	최윤희 엘리사벳	주현정 켄마
	한예슬 헬레나	허경범 마리노	홍서진 데레사	홍순주 안젤라
감사헌금	김옥희 스테파니아	1,000,000	손순남 모니카	200,000
	이미경	200,000		
성소후원금	김용 베드로	20,000		
토지·건축 헌금	김용 베드로	1,000,000	김원영 레오	100,000
	김옥희 스테파니아	1,000,000	김승태	50,000
			성모회	3,000,000

본당 부채 현황(교구 차입금·토지)	금주 토지·건축 봉헌금	본당 부채 적립금
1,264,113,700원	5,200,000원	56,840,000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1-858011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책정자명과 세례명 꼭 기입)
------	---

♡ 봉헌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간지 교리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1-I 미사전례》)

◆ 미사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아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사 중 주님의 기도는 사제의 초대 말, 주님의 기도, 사제가 혼자 바치는 후속 기도, 신자들이 바치는 마침 영광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신자들이 바치는 마침 영광송은 ‘아멘.’의 역할을 대신하기에 주님의 기도 끝에는 ‘아멘.’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81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60항 참조)

영성체 예식은 주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체로 오시는 주님을 합당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느님 백성이 함께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청하는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지만 동시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체(하느님의 빵, 요한 6,33 참조)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을 합당하게 모시려면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청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는 영성체 준비에 적합한 기도입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81항 참조).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제는 먼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라고 모두에게 기도를 권고합니다. 모든 신자는 사제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이어서 사제 홀로 팔을 벌린 채 후속 기도를 바칩니다. 후속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서 나오는 마지막 청원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악의 힘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끝으로 모두 함께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라는 마침 영광송으로 주님의 기도 전체를 끝맺습니다.

교회는 일찍이 전례 안에서 주님의 기도에서 영광송을 덧붙여 기도드렸습니다(디다케, 8,2참조). 미사 중에 대영광송, 거룩하시도다, 감사 기도에서도 영광송으로 기도를 끝맺는데,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영광송으로 응답하는 것은 가장 합당한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fiat)’라는 의미인 ‘아멘.’ 대신 주님의 기도를 영광송으로 장엄하게 마치는 것입니다.